

시민의 여러분께

오늘(7월 21일), 히라카타 시립중학교 학교의 학생 1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환된 학생은 경증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1일도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을 받아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는 7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학교의 전부를 임시 휴업(학교 폐쇄)과 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역학 조사(접촉자에 관한 조사)의 결과 해당 교에서의 농후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 재개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교내의 소독 등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해 갑니다.

또 “감염자가 나온 학교에 접근하면 감염한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토대로 SNS에서의 발신이나 언동은 실시하지 말아 주세요. 누구나가 감염해도 이상하지 않은 바이러스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긴급사태 선언은 해제되었습니다만 도쿄도에서는 연일 많은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고 오사카부내에서도 감염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7월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14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서 3미터의 회피나 기침 에티켓의 철저 세세한 화장실 등을 실천해 주셔감염 방지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도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 기관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감염 확대의 방지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레이와 2년 7월 21일

히라카타 시장

후시미 다카시

伏見隆